

#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에 나타난 일본사회의 범죄화

## - 모리구치의 복수를 둘러싼 집단 광기(狂気)를 중심으로 -

임만호\*  
mhlim@gachon.ac.kr

### <目次>

- |                             |                |
|-----------------------------|----------------|
| 1. 서론                       | 4. 범죄화 되어가는 사회 |
| 2. 범법자 소년A, B와 모리구치 복수의 상관성 | 5. 결론          |
| 3. 소년A와 B의 범죄 외연에 드러난 가정 문제 |                |

主題語: 소년법(Juvenile Act), 살의(murderous intent), 이지메(Izime(bullying)), 소년범죄(juvenile crime), 사회범죄화(social criminalization)

## 1. 서론

미나토 가나에(湊かなえ)의 데뷔작 『고백(告白)』(2008)은, 발표 당시 ‘미나토 가나에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sup>1)</sup>이다. 이러한 반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등장인물들이 각각 1인칭이란 고백 형식을 빌려 서로의 의견에 거리감을 두어 작품 플롯을 독립적으로 전개하는 구성의 특이성과 함께, 그들의 고백 속에 내재된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얹히면서 현재 일본사회에 감추어진 어두운 세태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선생 모리구치(森口悠子)가 사랑스런 딸 마나미(真実)를 살해한,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와타나베 슈야(渡辺修哉, 이하 소년 A로 함)와 시모무라 나오키(下村直樹, 이하 소년 B로 함)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에는, 가령 소년법<sup>2)</sup>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1) 2007년 잡지 『소설추리(小説推理)』 8월호에 「성직자(聖職者)」로 29회 소설추리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미나토 가나에는, 「성직자」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은 6편의 단편을 모은 장편 『고백』을 발표하였고, 2013년 8월까지 약 250만부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나카지마 데쓰야(中島哲也)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2) 2008년 당시 소년법에 관련해서, 2007년의 개정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부분은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 일본의 형법에

문제를 비롯한 미혼모 문제나 학교 집단 이지메, 존속 살인 등이 사실적 함축적으로 서술되면서 현 일본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나토 가나에가 작품과 관련 인터뷰 중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감각이라든가,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sup>3)</sup>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작가가 말한 ‘경계선’이란, 지금까지 일본사회를 유지해 왔던 질서 체제(사회적 안전장치로 윤리나 관습 혹은 법률 등)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아니면 그 기능이 상실되기 일보직전의 위기 상태(= 경계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추된다. 달리 말해서 만일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을 한 발 넘어버린 순간 -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거나 - 의 일본의 현 사회를, 작가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작품 『고백』이라 하겠다.

더욱이 작품에서 이러한 경계선의 긴장 및 평형 관계를 깨뜨리는 주요 사건은 다름 아닌 소년 A, B가 그들의 학급 담임으로 있는 모리구치 선생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다. 즉 모리구치가 말한 대로 살의는 있었지만 살인하지 않은 소년 A와 살의는 없지만 살인한 소년 B를 과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복수)는, 단순히 일본 소년법의 판단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소년 A와 B가 일으킨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모리구치 선생의 복수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조감해 보고자 한다.

## 2. 범법자 소년 A, B와 모리구치 복수의 상관성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작품 『고백』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소년 A와 B에 대한 모리구치 선생의 복수가 작품 전체 큰 틀을 이루면서, 각 장마다 모리구치, A와 B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각자의 시점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러 고백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모리

---

서는 41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14세 미만인 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14세가 되지 않았고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소년법 3조1항2호)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부르고,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호처분으로써 소년원송치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2007년 개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5%B0%91%E5%B9%B4%E6%B3%95> 참조.

3) 湊かなえ(2009)『著者インタビュー湊かなえさん』『告白』楽天ブックス

[https://books.rakuten.co.jp/event/book/interview/minato\\_k/](https://books.rakuten.co.jp/event/book/interview/minato_k/)

구치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소년 A와 B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경찰에 진상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A와 B의 처벌을 법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의는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은 A, 살의는 없었지만 직접 죽이게 된 B. 경찰에 출두시켜도 둘 다 시설에 들어가기엔 커녕 보호관찰 처분, 사실상의 무죄방면이 될 게 뻔합니다. (중략) 저는 두 사람이 생명의 무거움과 소중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안 다음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직자』, pp.58-59)<sup>4)</sup>

즉 여기서 모리구치가 소년 A와 B에게 복수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딸인 마나미를 죽인 범법자 A와 B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학생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모리구치가 미혼모인 까닭에 마나미를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성인이 아닌 중학교 학생이, 그것도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어린 소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소년 A와 B가 행한 범법에 관련해서, A의 경우 살의는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 않았고, B의 경우 살의는 없었지만 직접 죽였다. 이는 외형상으로 직접 살해한 소년 B가 살의만 가진 소년 A에 비해 직접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sup>5)</sup>에 해당되지만, 실상 소년 A의 고백을 살펴보면 꼭 그렇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나는 진실을 고백했다. 발명품(충격 지갑 - 인용자)으로 살인을 하고 싶었다. 루나시보다 대대적으로 마스크를 타고 싶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이용하려던 시모무라가 겁을 집어먹고 시체를 수영장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끝나서 몹시 애석하다고. (『신봉자』, p.265)

소년 A는 어릴 적 이혼한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살인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살인을 좀 더 마스크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특정 대상으로 마나미를 정하였고, 또한 자신의 살인을 위한 조력자이자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증인으로 소년 B를 필요로

4) 텍스트는 『告白』(湊かなえ、双葉文庫、2010)을 인용하였다. 이하 (작품명, 페이지수)만 표기한다.  
5) 한국의 <형벌의 기능>의 경우, “형벌은 국가의 공적 권위에 의하여 그 행사가 담보되는 하나의 사회통제 수단이지만, 그 성질상 모든 사회생활을 포괄할 수는 없다. 또한 사전적(일반예방 및 예고적)으로 기능할 경우 현실감이 부족하며, 사후적(특별예방·보안 및 응보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죄와 관련하여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범조문이나 구체적인 선고형의 내용을 거의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형벌의 한계를 잘 설명하여 준다”고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년 A의 살의는 법률적으로 사전적 기능이기에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860&cid=40942&categoryId=31721> 참조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년 A의 살인 계획은 실패(살인미수)하였고, 그 대신 소년 A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소년 B는 A에게 들은 ‘인간 실패작’이란 말에 대한 복수<sup>6)</sup>로 아직 살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나미를 수영장에 빠뜨려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소년 B가 직접 살인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원인은 바로 살인미수, 혹은 살의에 그친 소년 A에 대한 복수로 인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A의 살의는 법률적으로 범죄성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간의 합의, 즉 관습적, 윤리적으로 볼 때 소년 A의 살의는 엄연히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리구치는 법률적으로 소년 B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동시에 법률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소년 A 또한 죄에 상응하는 벌 - ‘죄의 무거움’ - 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년 A와 B가 범죄를 행한 벌을 받기 위해서 응당 해야만 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 일본 소년법에 의하면 범법자 두 사람은 보호관찰에 이은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작품이 출판될 당시 2007년에 개정된 일본 소년법은 주로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마에노 이쿠조(前野育三)에 의하면, 일본의 형법에서는 41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14세 미만인 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14세가 되지 않았고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소년법 3조1항2호)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르고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호처분으로써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게 되었다<sup>7)</sup>고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소년법은 모리구치가 소년 A와 B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소년 A(소년 B보다 더 죄가 무겁다고 생각되지만)는 말할 것도 없으며 소년 B 또한 자신들의 죄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이른바 무죄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리구치는 경찰로 대표되는 사회, 혹은 국가 공권력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안 이상, 지금까지 자신이 담임으로서 두 학생(A와 B)을 가르쳐 온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무거움과 소중함’ 및 자신들이 행한 ‘죄의 무거움’을 깨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법자 A와 B에 향한 모리구치의 복수이며, 구체적으로 A가 고백한 “살이란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인간이 그 경계

6) 이 녀석은 무서워서 시체를 수영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내 계획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다. 어째서 그런 짓을? 간단하다. 내가 현장을 떠나면서 내뱉은 말, 그 말에 대한 복수다. (『신봉자』, p.264)

7) 前野育三(2008)『被害者との関連で見る日本における少年法の改正』『少年保護研究』11, pp.44-61 참조

선을 넘어왔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p.256)고 말한 것처럼 살의, 즉 범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구치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 바꾸어 말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선생 직분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다만 모리구치의 복수가 윤리적, 관습적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회가 소년법으로 A와 B를 보호하고 무죄로 인정해 준다면, 자신의 복수 또한 기존의 사회가 정한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리구치의 복수에 관련해서 미나토 가나에는 “나 자신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지나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답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sup>8)</sup>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현재의 소년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 소년 A와 B를 향한 모리구치의 복수는 일본 사회(혹은 국가)구성원에게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sup>9)</sup>라고 할 것이다.

결국 소년 A의 살의는 결과적으로 소년 B가 모리구치의 딸 마나미를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모리구치의 복수로 반복 및 양산,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소년 A와 B의 범법 행위나 모리구치의 복수 감정은 다른 아닌 학교 사회 -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본 사회의 축소판을 상징이자 선생과 학생 간의 ‘신뢰관계’ -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학교는 더 이상 학교로서의 의무, 즉 교육 과정(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윤리적, 관습적, 법률적, 완전한 인격을 완성시키는 공간의 의무를 상실하고 말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존 소년법에서 촉발된 모리구치의 복수<sup>10)</sup>는 단순히 개인적 복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에서 공동체까지 이르는 일본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8) 湊かなえ(2008)『話題も著者に聞く(36) 湊かなえ『告白』このラストの意味は読んだ方に考えてほしい』『文蔵』PHP文庫, p.399

9) 남상현은 이러한 현상을 ‘탈사회성’으로 보며, “사회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윤리와 법률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살인>은 <생존>의 도구로서 전락하여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이 전개된다”고 말하고 있다.

남상현(2016)『일본의 소년범죄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5

10) 이는 모리구치의 복수, 즉 우유 급식에다 에이즈 피를 넣은 것을 포함해서, 소년 A의 살의나 소년 B의 살인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말할 수 있다.

### 3. 소년 A와 B의 범죄 외연에 드러난 가정 문제

이처럼 모리구치의 복수에는 일차적으로 소년 A의 살의와 소년 B의 살인을 기제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각 개인 간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모리구치는 소년범이라는 이름 아래 소년 A와 B가 어린아이를 죽였음에도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는 불합리성에 더욱 분노(살의)<sup>11)</sup>를 느꼈으리라 본다. 즉 학교라는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살인 행위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기커녕 보호관찰 및 무죄방면 되는 사법 체계에서, 더 이상 학생이라 볼 수 없는 범법자 소년 A와 B와 마찬가지로 모리구치 또한 선생으로서의 책무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모리구치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었던 만큼 A와 B가 저지른 자신의 범죄를 복수(숙죄)하려는 이면에는 소년법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를 각각의 고백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소년 A와 B에 둘러싼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소년 A의 고백 경우, 어릴 적 그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아동학대, 그리고 뒤이은 부모의 이혼이란 경험에서 원초적 살의가 내재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과거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어머니는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현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여 A를 낳자 지금까지 공들여온 연구자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너만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같이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채소를 남겼다, 시험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다, 문을 요란하게 닫았다... 계기는 뭐든 상관없었을 것이다. 그저 내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으리라. (중략) 어머니가 방에서 나가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나라는 존재가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였다. (『신봉자』, pp.237-238)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A의 출생 때문이라고 여기고 학대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차치하고 A가 그렇게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학대<sup>12)</sup> 그리고 10살 무렵 학대로 인한 이혼<sup>13)</sup>은 A 스스로가 버림받

11) 소년 A 와타나베의 고백 중에는 “미성년자가 사람 하나 죽인들 별로 큰 반향이 없다는 사실은 시모무라 사건을 통해 확인해졌다”(『신봉자』, p.277)고 언급한 것처럼, 작중에서 와타나베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2)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67명의 아동(유아)가 학대로 인해

있다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유전적 천재성을 이용하여 중학생다운 발명품을 만들지만 그 또한 누구도 인정받는데 실패하였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마지막 고백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A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 말하자면 “발명가가 되겠다는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떠났다”라고 믿었던 사실 - 이 대량학살 계획이라는 복수(살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가 떠난 지 4년. 겨우 깨달은 사실이 있다. 어머니에게 짐이 되었던 요소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 슈야라는 이름이 붙은 자식이 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슈야는 이미 과거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벌써 기억에서 말소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이제부터 실행할 대규모 살인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다. 어머니가 본인이 저지를 죄를 각성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신봉자』, pp.281-282)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년 A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를 향한 복수 외연에 드러난 당시 일본 사회의 높은 이혼율이나 아동학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망하고 있다. 사망한 아동의 연령은 1살이 59.1%로 가장 많고, 2살은 14.1%, 대부분 사망한 아동의 88.5%가 1에서 6살 사이이다. 한편 가해자는 어머니가 59.0%로 가장 많으며, 아버지가 16.4% 그리고 원하지 않은 임신인 경우 31.3%로 나타났다. 이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44.8%이고, 미혼모가 19.0%, 내연관계가 15.5%이다.

| 기 간                     | 학대로 인한 사망 | 합 계 |
|-------------------------|-----------|-----|
| 2004.01.01 - 2004.12.31 | 50        | 58  |
| 2005.01.01 - 2005.12.31 | 56        | 86  |
| 2006.01.01 - 2006.12.31 | 61        | 126 |
| 2007.01.01 - 2008.03.31 | 78        | 142 |
| 2008.04.01 - 2009.03.31 | 67        | 128 |
| 2009.04.01 - 2010.03.31 | 49        | 88  |
| 2010.04.01 - 2011.03.31 | 51        | 98  |
| 2011.04.01 - 2012.03.31 | 58        | 99  |

(일본 아동학대에 의한 아이 사망건수)

<https://ja.wikipedia.org/wiki/%E5%85%90%E7%AB%A5%E8%99%90%E5%BE%85> 참조

- 13) 일본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구(旧) 민법에서의 가족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않은 메이지(明治) 중반까지는 상당히 높았다. 그것이 1898년 민법전 시행 후, 점차로 감소하여 전후(戰後) 혼인율 증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상승한 다음은 1960년대는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1960년에는 인구 천 명 당 대비 0.73로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상승으로 바뀌더니, 1980년대에는 혼인율 감소 영향도 있어 일시적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2002년에는 2.30로 전후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했다. 이후 혼인율 저하 등으로, 이혼율로 감소하게 되어, 2014년에는 1.77이 되었다.

<https://honkawa2.sakura.ne.jp/2777.html> 참조.

다시 말해서 소년 A의 범죄를 둘러싼 그 원인의 배경에는 어릴 적 부모(특히 어머니)의 애정결핍이나 학대에 따른 폭력성 등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정환경에 의한 살의가 점점 배양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이와 달리 소년 B의 경우는 소년 A의 가정환경과 정반대로 아버지의 부재<sup>14)</sup>에 따른 어머니의 과잉보호(마마보이)가 일본 가정 내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일기에는 소년 B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기 자식에 대한 극단적인 편애를 찾아 볼 수가 있다.

남편은 경찰에 알리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키를 공범으로 몰아넣으면 어쩔 셈이나고 물어도, 나오키를 위해 그러는 편이 좋다고 하지 뭐예요. 아버지들이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역시 나오키는 제가 지켜야 해요. (중략) 만약 나오키가 정말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리구치가 다그칠 때까지, 나오키가 제게 잠자코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분명 그런 거예요. 이걸 전부 불쌍한 그 여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애자』, pp.130-131)

실상 소년 B의 가족은 부모와 누나를 포함해 4명인 집안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걸리고 잦은 잔업으로 집에 거의 없는 아버지 및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누나(眞理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년 B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산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 B는 어머니의 이상(理想)<sup>15)</sup>에 맞게 자랐을 것이며, 이에 소년 B 또한 모든 일에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지하면서 생활해 왔을 것이다. 즉 집안에서의 아버지 부재<sup>16)</sup>는 결과적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은 물론이고 어머니로서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들에게 헌신했을

14)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사실은 집에 이변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은 아닙니까? (『자애자』, p.166)에서, 설령 아버지가 집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겁 많고 무능력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어머니는 딸인 제게는 장래에 어디로 시집을 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일반적인 교양이나 예의범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교육하였습니다. 반대로 남동생에게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깊은 애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애자』, p.140)

16) 일본의 한 블로그 <가제미와(風観羽)>에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의 아버지 부재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버지상(일본문화의 중핵에 있는 이상적 남성상)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젊은 층에 있어서는 전후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공과 함께 의식 및 양성해 왔던 아버지의 권위 및 존경 또한 완전히 없거나 리셋되어 버렸다고 말하며, 현재 아버지 또는 이상적 남성상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의 대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http://ta26.hatenablog.com/entry/20111225> 참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처음과 달리 나이가 들어 중학생이 된 소년 B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기대 -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강조 - 에 거부감을 점차 느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소년 B가 처음 소년 A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B가 오락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돈을 빼앗기고, 그것이 학교에 알려져 교칙에 따른 처벌로 일주일간 수영장과 탈의실 청소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A가 말한 “굉장한 비디오를 손에 넣었는데 너도 볼래?”와 “누구 혼내주고 싶은 녀석 없어?”(「성직자」, p.53)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년 B가 A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한테서 경험하지 못한, 강하고 거칠면서 믿음직스러운 남성적인 이미지를 발견했으며, A와 같이 범행을 행하는 것 또한 B가 A와의 동일화(남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B가 범행을 행한 뒤에 A가 B에게 한 말, 즉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도 돼” “처음부터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센, 그런 놈들이 제일 싫거든”(「신봉자」, p.261)라고 했는데, 여기서 A의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자존심만 세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남성스럽지 못한 여성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적으로 ‘인간 실패작’이라고 B의 남성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실패작이야”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내 머리엔, 떠나면서 와타나베가 남긴 말이 재차 되살아났다. 나를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 태도 역시 살인자가 되려 했던 거다. 나를 이용해서,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다. 와타나베의 계획은 실패다.

실패! 실패! 실패한 주제에! 그것도 모르다니, 바보 아냐? (중략) 나는 와타나베가 실패한 일에 성공한 거다.

(「구도자」, p.195)

따라서 소년 B가 마나미를 살해한 것은 소년 A보다 남성적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나중에 B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남성성 회복의 반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B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는 와중에서 어머니의 “실패해서 미안하구나...”하는 말에 B는 “그만해! 그만해! 나는 실패작이 아니야!”(「구도자」, p.227)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17)가 여성성 실패라고 한다면, B의 살인은 여성성을 부정하면서 남성상을 회귀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17) 모리구치가 “시모무라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키운 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전도사」, p.296)고 말하는 것처럼, 소년 B는 어머니의 이상형 혹은 여성성을 투영된 인물이며, 그에 대한 실패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년 A와 B의 범행 - 살의와 살해 - 은 그들이 어릴 적 가정환경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및 이혼 그리고 아버지 부재 및 어머니의 과잉보호에 이미 내재되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소년 A와 B의 가정환경을 시작으로 한 모든 일반 가정환경<sup>18)</sup>, 나아가 일본 사회 전반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범죄화 되어가는 사회

소년 A와 B의 범죄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가정환경에서 이미 배양되었으며, 학교라는 사회공동체까지 확산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처음에는 A의 살의에서 시작된 것이 점차로 B의 살인으로 확대되어가고, 나아가 두 소년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비록 미혼모이지만, 중학교 담임선생으로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던 모리구치의 복수 - 살의로서의 범죄 - 로까지 반복, 재생산되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복과 재생산은 개인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개인과 집단으로까지 반복 및 가정에서 학교 혹은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리구치의 고백을 통해 소년 A와 B가 범죄자임을 알게 된 이후 학급 학생들의 소년 A와 B에게 행한 집단 이지메<sup>19)</sup>는 한 개인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범죄임이 틀림없다.

어느 날 모든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슈야에게 친벌을! 제재 포인트를 모아라!

발신자는 선생님의 고백이 끝나고 받았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제재 포인트라는 것은 슈야를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연락처에 보고를 하면 포인트를 받고, 매주 토요일에 집계하여 학급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살인자와 같은 편으로 간주해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포인트 제로인 아이가 저 말고도

18) 소년 A와 B 이외에도 모리구치의 경우는 최근 미혼모(싱글맘)가 사회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19) 일본 이지메는 1985년부터 음성화한 교내폭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지메에 의한 폭력으로 중상을 당하거나, 자살하는 예도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간, 이지메를 당하지 않는 아동학생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통계상 이지메가 가장 많은 연령대이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조사(2004-2009)에 의하면, 학년별로 볼 경우, 중학교 1학년만 17.063건의 이지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숫자는 초등학교 6학년(4.262건), 고등학교 1학년(3.701건)에 비해 4배(남녀비율로는 남자 54.8%, 여자 45.2%)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3%81%84%E3%81%98%E3%82%81> 참조

아직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었구나. 구원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순교자」, pp.86-87)

비록 모리구치의 복수에 의한 이지메, 즉 “슈야에게 천벌을! 제재 포인트를 모아라!”로 시작된 소년 A를 향한 학급 학생들 제재는, 소년 A는 물론 만일 이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제2의 소년 A로 간주하여 이지메를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미즈키(美月)가 “유코 선생님. 나오키와 슈야가 살인자라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입니까?”(「순교자」, p.94)라고 말한 바와 같이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이지메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해자(또는 범죄자<sup>20)</sup>)로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화 현상은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생성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변질된 학교에서의 범죄는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예컨대 모리구치의 고백 이후, 새로 부임한 담임선생 데라다(寺田, 일명 베르테르(ウェルテル))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소년 B를 위하여 학급 학생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쓰게 했는데, 그 속에서도 소년 B를 향한 이지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학급 아이들이 쓴 색지까지 주었습니다. 붉은 매직으로 눈에 띄게 큼직하게,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략) 공들인 암호라고 만들 요량이었습니까? 데라다는 눈치 채지 못해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머리글자를 합하면 “살인자, 죽어!” 아닙니까? 나오키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재미있다고 쓰는, 지성도 교양도 없는 무식한 인간들에게도 멸시당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덕분에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중략)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나오키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잃고, 당당하게 구는 살인자 아들에게 어미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애자」, pp.163-165)

격려의 말에서 보여지는 “살인자, 죽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소년 A에 대한 이지메와 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지메는 학교에 이어 가정으로까지 퍼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간의 확산만이 아닌, 다시 말해서 격려의 말을 보고 난 소년 B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B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결과적으로 소년 B에 의해 살해되었지만)하려는

20) 남상현은 일본의 소년범죄 변화와 관련해서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에 대한 과열로 인한 가정폭력, 교내폭력이 대표적으로 이지메, 린치 등과 같은 학교형 비행이 두드러졌다. (중략) 소년들은 게임 속 주인공과 일체화되어 자신의 가치를 위하여 쉽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기 시작하였으며, 비행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 한다”  
남상현(2016)『일본의 소년범죄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어딘가 비정상적인 공기(異様な空気)’(「순교자」, p.82)가 사회로까지 전염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정상적인 공기’란 바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왔던 생명의 무거움이라든가, 개인의 인권, 기존의 사회윤리나 관습 등으로 비유된 ‘공기’가 그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선생과 학생들 각각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비사회적인 집단 광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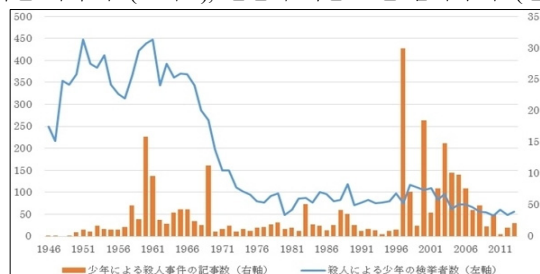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기’는 각 개인에서 집단으로, 학교에서 가정 및 사회로 일방적인 흐름만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역방향인 사회에서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TV나 신문,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매스컴에 의한 범죄사건 보도<sup>21)</sup>는 사실 자체의 순수한 의미보다는 시청률이나 판매 목적을 위한 흥미본위 위주로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8월에 일어난 ‘T시 일가 다섯 명 살해사건’은 여러분 기억에도 선명할 것 같군요. (중략) 텔레비전과 신문은 이 사건을 연일 크게 다뤘습니다. ‘루나시 사건’ 소년 양 말처럼,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듯하군요. (중략) 매스컴은 이 사건을 ‘루나시 사건’이라 명명하고, ‘성실하고 양전했던 소녀가 광기의 여신 루나시가 되기까지’ 등등 하며 이중인격설까지 내세워 흥미본위로 선동했습니다. (중략) 보도가 이래도 된다고 봅니까? 이 사건 보도는 인간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루나시라는 엽기적 범죄자의 존재를 일부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한 어둠에 각인시켰을 뿐이고, 어리석은 범죄자를 숭배하는 가련한 아이들을 선동한 것은 아닙니까?

(「성직자」, pp.31-32)

매스컴은 흥악하고 엽기적인 범죄일수록, 그리고 미성년자와 같이 특정 인물일수록, 범죄라는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범죄자에게 각종 허구를 더해 우상화(신격화)시킴으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로 하여금 제2의 모방 범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매스컴에서는 ‘루나시 사건’을 연이어 대서특필한다. 소년 A는 처음에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21) 소년에 의한 살인사건 기사 수 (그래프), 살인에 의한 소년 검거자 수 (선)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7811?page=4> 참조.

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 전국대회 특별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나 사건’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게 되자, 오히려 대량살인(폭탄 설치)<sup>22)</sup>으로 알리고자 한다는 면에서 범죄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인터뷰하던 날, 전혀 듣지도 못한 마을에서, 소년 범죄가 터졌다. 바로 ‘루나시 사건’이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가족들 식사에 몇 종류의 독을 넣어가며 그 추이를 블로그에 기록해 두다니. (중략) 가게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루나시 사건’ 화제뿐이었다. (중략) ‘루나시 사건’의 보도가 과열되면서 몸속의 거품이 터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훌륭한 일로 신문에 이름을 올려도 어머니는 알아봐주지 않는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어머니는 달려와 줄까? 이상이 내 ‘태생’과 ‘내면에 숨은 광기’, 그리고 ‘동기’ - 정확하게는 첫 번째 범죄의 ‘동기’다. (『신봉자』, pp.249-250)

남상현은 “최근의 일본사회는 사건의 수에 비하여 보도수가 현저히 많아지면서 일본대중은 보도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고 소년범죄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보도되는 소년 범죄는 흉악하고 이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본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흉악화되고 다발화되었다.”<sup>23)</sup>고 언급하는 바와 같이, 매스컴을 통한 ‘루나시 사건’은 그 사건의 진실이 아닌 흥미 중심으로 왜곡한 나머지 각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학교, 나아가 사회 전체를 ‘비정상적인 공기’를 증가<sup>24)</sup>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유발시켜, 자치하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범죄를 정당화, 일상화시킨다는 점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년 A와 B는 자신들의 개인적 범죄가 집단 이지메 혹은 존속살인으로 반복, 확대되는 한편, 사회 매스컴의 범죄 보도에 있어서 범죄자의 우상화 경향이나 흥미 위주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 있어서 ‘비정상 공기’가 정상적인 공기로 팽배하는, 이른바 비윤리적 생명경시, 탈사회화와 같은 사회 범죄화(말하자면 사회부적격자로 향한 광기 화)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소년 A는 매스컴이 미성년자 한 사람의 죽음에 그다지 반향이 없는 사실을 알고, “루나시보다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싶”(『신봉자』, p.265)은 마음에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남상현(2016)『일본의 소년범죄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24) 모리구치 선생은 “요란스럽게 떠들면 떠들수록, 범인인 청소년들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범인인 줄 알고 있었다면 사건을 최소한으로 다루고, 자아도취에 빠진 어리석은 아이들을 착각도 유분수라고 타일러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가 아녘니까?”(『성직자』, p.33)와 같이, 현재 일본의 매스컴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어느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즉 가해자 소년 A와 B 그리고 피해자 모리구치 선생의 고백을 통해서 현재 일본 사회의 범죄화(광기화)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모리구치가 말한 소년 A의 살의는 비록 법적으로는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것은 모리구치의 복수(살의)뿐만 아니라 소년 B의 살해로, 나아가 집단 이지메까지 반복, 재생산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 문제 이면에는 각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년법을 포함한 사회 마스크 보도에 의해 범죄를 허구를 더한 흥밋거리를 만들거나, 범죄자를 우상화하는 과정은 사회 전체를 범죄화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스크에 범죄 보도가 기존의 사회의 윤리와 관습의 유지, 말하자면 인간 생명의 존엄을 각성시키는 역할이라기보다, 범죄를 이용한 독자확보나 높은 판매량에 치우친 자본주의 생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해 가던 범죄는 역으로 사회 마스크를 통해 모방 범죄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범죄 정당성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작품 속에서 작가가 모리구치를 통해 피의자 와타나베 슈야와 시모무라 나오키를 대부분 소년 A와 B로 명명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학급 내의 인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특정 A로 B로 상징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보편적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작가가 의도하든 안하든, 그리고 일본 사회의 범죄화(‘비정상적인 공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어의 명명성은 작품 목차인 <성직자>, <순교자>, <자애자>, <구도자>, <신봉자>, <전도자>와 같은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이란 면에서, 지금까지 주로 종교적 의미로 쓰여진 이러한 단어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범죄로 만연된 사회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작품 『고백』은 등장인물 각각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여기서는 미성년자이지만)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여과 없이 노출시킴으로서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로 무엇보다 지금까지 소년법이나 마스크와 다른 차별된 구조적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前野育三(2008)「被害者との関連で見る日本における少年法の改正」『少年保護研究』11、pp.44-61
- 湊かなえ(2008)「話題も著者に聞く(36)湊かなえ『告白』このラストの意味は読んだ方に考えてほしい」『文蔵』PHP文庫、p.399
- 남상현(2016)『일본의 소년범죄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5-115
- <텍스트>
- 湊かなえ(2010)『告白』双葉文庫
- <사전 및 도표>
- <https://ja.wikipedia.org/wiki/%E5%B0%91%E5%B9%B4%E6%B3%95>.
- [https://books.rakuten.co.jp/event/book/interview/minato\\_k/](https://books.rakuten.co.jp/event/book/interview/minato_k/).
- <https://ja.wikipedia.org/wiki/%E5%85%90%E7%AB%A5%E8%99%90%E5%BE%85>.
- <https://honkawa2.sakura.ne.jp/2777.html>.
- <http://ta26.hatenablog.com/entry/20111225>.
- <https://ja.wikipedia.org/wiki/%E3%81%84%E3%81%98%E3%82%81>.
-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7811?page=4>.

---

|        |                 |
|--------|-----------------|
| 논문투고일  | : 2018년 09월 14일 |
| 심사개시일  | : 2018년 10월 17일 |
| 1차 수정일 | : 2018년 11월 09일 |
| 2차 수정일 | : 2018년 11월 14일 |
| 게재확정일  | : 2018년 11월 19일 |

---

---

**<要旨>**


---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에 나타난 일본사회의 범죄화**

- 모리구치의 복수를 둘러싼 집단 광기(狂気)를 중심으로 -

**임만호**

미나토 가나에의 데뷔작 『고백(告白)』(2008)은, 발표 당시 ‘미나토 가나에 신드롬’을 일으킨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백을 통해서 현재 일본 사회의 범죄화(광기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모리구치를 통해 피의자 와타나베 슈야와 시모무라 나오키를 대부분 소년 A와 B로 명명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학급 내의 인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특정 A와 B로 상징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보편적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작가가 일본 사회의 범죄화(‘비정상적인 공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작품 목차인 <성직자>, <순교자>, <자애자>, <구도자>, <신봉자>, <전도자>와 같은 단어의 명명성은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이라는 면에서, 지금까지 주로 종교적 의미로 쓰여진 이러한 단어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범죄로 만연된 사회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작품 『고백』은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여과 없이 노출시킴으로서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현재의 소년법이나 매스컴과는 다른 차별화된 구조적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riminalization of Japanese Society in 『Confession』 of Kanae Minato**

- Focusing on the collective madness around Moriguchi's revenge -

**Im, Man-Ho**

Kanae Minato's debut 『Confession』(2008) is a work that became popular enough to cause ‘Kanae Minato Syndrome’ at the time of release. This work shows the process of criminalization(madness) of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confess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n the work, the author mostly names the suspects ‘Shuya Watanabe’ and ‘Naoki Shimomura’ boy A and boy B through Moriguchi. It seems to indirectly talk about the universal problem of Japanese society by rather presupposing unspecified A and B, instead of simply respecting human rights within their class. Furthermore, although the author did not provide a clear answer to the criminalization of Japanese society (‘abnormal atmosphere’), the naming of the work contents such as <clergy>, <martyr>, <self-lover>, <truth-seeker>, <devotee>, and <evangelist> indirectly criticizes that theses words, which have been used in a religious sense, are no longer accepted in this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it has the meaning of an alternative to a crime-infested society in the future because these are heterogeneous words that are far from the content, even though they have a religious character.

In this way, a work 『Confes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riticizes the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by exposing the cheapening of human life inherent in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as a whole through the confession of the characters. and furthermore by offering a structural system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Juvenile Act and the mass media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